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부 14학번 서민우입니다. 21년 하반기 8월부터 반도체 공정 중 후 공정을 다루는 'SFA반도체' 라는 회사에 품질관리 직무에 합격 후 신입사원으로 일을 배우는 중입니다. 우선, 저는 글을 잘 쓰질 못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제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9733. 3860)

전공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직무가 뭐가 있을까,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한 동기들과 후배님들에게 이글을 쓰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교생활, 학점관리, 취업하는데 준비해야하는 것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라, 자기소개서 첨삭받기, 면접스터디 하기와 같은 틀에 맞춰 쓰기 보다는 저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1. 방학 때 뭐하면 좋을까요?

취업 후기 글을 보는 학우들 중, 신입생 학우들이 있다면 최대의 고민이 2개월 이라는 방학 동안 뭐해야 하나요? 라는 고민이 가장 많을것이라 생각하여 저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학기 중 열심히 해서 학점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학을 의미있게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여름 / 겨울)

대학교 신입생 처음 방학이라고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겨울방학은 군대를 앞두고 지금 공부해도 다 까먹는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자격증의 기한이 없는 컴퓨터활용능력 혹은 한국사를 이 기간에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2학년, 3학년 - 여름 / 겨울)

저는 사람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학생회를 도와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대외활동에 지원했습니다. 전공을 살리는것만이 대외활동이라 생각하지 않아, 대구 치맥 페스티벌, 컬러풀 대구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수많은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더하여, 토익 학원을 1달 다니고 남은 방학은 놀았습니다. 취업은 졸업 후에 하고 토익 기간은 2년이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쳐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3학년때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여름, 겨울 방학때도 신입생 행사 준비를 하면서 토익 학원을 1개월 다녔습니다. 너무 놀기만 하면 걱정이돼서, 학원을 다니면서 놀았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에는 토익이 너무 지겨워 회화 학원을 1개월 다니면서 놀았습니다.

(4학년 - 여름)

4학년의 방학은 류정호 교수님의 기능소재소자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연구실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학회도 참여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름방학은 신소재공학부에서 신청하는 현장실습에 신청하여, 현장실습을 1개월 참여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진로를 정하지 못해, NCS학원을 1개월 다니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스터디 인원들을 만나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어학

토익, 토스, 오픽 어학점수는 물론 높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수 하나 하나에 매달리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문제 푸는게 본인과 맞지 않으면 스피킹으로 하시고, 스피킹보다 푸는게 더 본인에게 맞다면,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구 시내 혹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토스 공부를 하면 3주안에 레벨6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토스 6이면 회사에 원서를 내는데 있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기타 사항

1)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는 시점은 정보력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자주 확인하면서 3학년때부터 인턴 혹은 조기취업채용 등 다양한 정보가 있다면 미리 작성하시면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4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자소서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글을 쓰는데 있어서 소질이 없어서 영남대 어울림 사이트에서 하는 자소서 캠프에 4주간 참여하여 백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소서의 처음 시작이 너무 어렵다면, 자소서 캠프에 참여를 추천합니다. 여담이지만, 꼭 첨삭 선생님 여러분을 만나보고 본인과 맞는 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a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완성된 자소서를 b선생님에게 찾아갔었는데 새로 다 써야 한다는 첨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울림에 선생님 한분을 정하셔서 꾸준한 상담과 자소서 첨삭을 통해 자소서를 완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자소서를 작성할 때, 목표하는 기업도 없었고 단순, 취업이 목표였기에 '자소설닷컴', '사람인' 등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취업공고가 뜨는대로 자소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자소서 합격을 받기 까지 40개 기업의 자소서를 작성하고 지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가 이기는 게임이니 될 때까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거짓말은 해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생활, 방학기간 등 다양한 경험을 자소서, 면접에 녹아내면서 경험의 몸집을 부풀리는 것은 긍정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 동기

주변 동기, 선후배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 오는데,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사라지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 잘되면 좋기에 너무 경쟁만 하기 보다는 정보도 공유하고 도와주십시오.

3) 면접

어울림 사이트, 유튜브, 취업한 선후배 등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확실한 양질의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통해 말하는 스킬을 늘 수 도 있지만, 확실한 방법은 실전 면접에 가보는 것입니다. 졸업 직후, 전공무관 상관없이 50개의 기업에 자소서를 제출하면서 10군데 기업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공과 무관한 마이다스IT 영업직군, BGF리테일 영업직군, 외국계 장비사, 퍼시스 가구그룹, 삼성전자 등 다양한 곳에서 면접을 보면서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4) AI 면접

COVID-19 이후로 자소서 합격 이후에 AI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다스 아이티와 뷰인터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다스 아이티 AI면접을 10차례 넘게 응시하면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하고 싶은 말

학점 높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낮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길어진다고 해서 지치지 말고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취업준비생들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